한국어 의미학 35, 145-187 (2011. 08. 30.)

‘영어+하다’류 외래어 형용사의 국어 내 정착 양상 연구

- 한자어, 고유어와의 유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손 혜 옥 · 이 수 미
(연세대학교)

<Abstract>

Son, hye ok, Lee, su mi. 2011.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Loan Adjectives of ‘English+hada’ Type in the Korean Language - Focusing on their synonymic relation with Sino Korean words and native words. *Korean Semantics, 35.* As research on the settlement of loan words from a lexical viewpoint, this study analyzed the synonymic relation of loan adjectives of ‘English+hada’ type with their corresponding Sino Korean words and native wor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 adjectives of ‘English+hada’ type sampled from the entries of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Yonsei Korean Dictionary>, and corpus materials and Naver newspaper articles were used. Through this process, we defined the semantic domain occupied by this type of adjectives in the Korean language, and analyzed their synonymic relation with existing adjectives in three categories: those synonymous with existing words; those similar to existing words, and those without any synonymic relation with existing words.

This study overcame limitations in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ltered people’s attention from nouns, which have been the focus of previous studies on loan words, to adjectives and reilluminated loan words that have been considered redundant with existing Sino Korean words and native words or harmful to the purity of our language. Loan words will be imported and coined continuously as

www.kci.go.kr

long as the speech community's desire to create new words is not fully gratified. Our duty is continuity research on loan words, regarding them not simply as objects of cleanup but as our assets that enrich our language life along with existing words.

핵심어: '영어+하다'류 형용사, 고유어, 한자어, 순화어, 유의 관계, 외래어

1. 서론

최근 들어 신어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신어의 생산과 유포가 언론인, 방송인, 정치인, 또는 언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특정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그 방향이 일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앞서 언급한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어 생산자, 유포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하게 되었으며 그 방향도 양방향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신어의 생산과 유포가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요인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오늘날의 통신 매체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통신 매체의 발달은 일반인들이 새로 만든 단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간까지도 단축하게 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의 신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신어의 생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유형의 외래어[2)]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 특히 영어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외래어 중에서도 영어를 어원으로 가지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토탈'과

1) 신어의 생성 동기와 유포에 관해서는 김진해(2006)을 참고할 수 있다.

2) 보통 외래어는 한자어를 제외한 차용어를 말하며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와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외래어는 외국어와 구별되어 한국어 내에 정착된 단어를 말한다. 한국어의 정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외래어 정의를 받아들여 한국어 사용 맥락에서 사용되는 외국 기원의 어휘를 모두 일컫는다. 이러한 외래어의 정의는 노명희(2009:7-11)를 받아들인 것이다.

3) 국립국어원 신어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한자어가 포함된 신어가 79.5%, 외래어 신어는 25.9%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64%, 2003년에는 56.1%, 2004년에는 55.1%, 2005년에는 33.8%의 비율로 2005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외래어 신어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노명희(2009:5) 재인용).

www.kci.go.kr

같이 영어가 그 의미 그대로 국어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개팅’과 같이 영어의 한 부분을 절단하여 형태소로 재해석한 뒤 기존 어휘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귀차니즘’과 같이 영어의 접사를 고유어에 결합하여 파생어로 만드는 경우와 ‘심플하다’와 같이 영어의 단어를 어근으로 하여 고유어 접사를 결합시키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종류도 다양하다.[4] 이러한 외래어들 중에는 사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어 어휘와 함께 활발히 쓰이면서 점차적으로 국어 내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영어 외래어의 국어 내 정착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래어의 정착 양상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관점, 통사론적 관점, 어휘론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5]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외래어가 한국어에 어떤 단위로 들어오는지, 단어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외래어가 원어와 비교해서 한국어에서 어떤 통사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어휘론적 관점에서는 외래어가 한국어에 들어와 기존의 다른 어휘와 어떤 계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 통사, 어휘적 분석을 통해 외래어가 한국어에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관점에서 외래어의 정착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외래어가 국어에 들어오면 기존의 여러 어휘와 반의, 상하, 유의 관계 등을 맺으며 국어의 어휘부에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어[6]와 맺고 있는 이런 계열 관계를 검토해 보면 국어 어휘부 내에서 이들이 어떤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정착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유형의 외래어를 대상으로 반의, 상하, 유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모든 것을 본

4) 외래어의 단어 형성의 유형에 대해서는 노명희(2009)를 참고할 수 있다.

5) 노명희(2009)에서는 형태론적 관점, 즉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외래어 정착에 대해 다루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는 한국어에 들어와 그대로 단일어로 쓰이기도 하고, 어근이나 접사로 재분석되기도 하며, 혼성어나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외래어 단어 형성은 한자어가 국어에 정착하면서 단어 형성을 해 나가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통사론적 관점의 연구로는 이홍식(2004)가 있다. 이홍식(2004)에서는 ‘외래어+하다’ 동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논항과 격틀을 확인하고, 원어에서의 논항, 격틀과 비교하였다.

6) ‘기존어’는 국어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말한다. ‘기존어’라는 용어는 없지만 ‘국어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고유어’라는 말이 너무 길어 이 연구에서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다.

www.kci.go.kr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정밀한 논의를 위해, 외래어 정착에 대한 어휘적 관점의 연구라는 큰 전제 하에, '영어+하다' 형용사를 대상으로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 연구를 좁혀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영어+하다' 형용사와 이에 대응되는 국어의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영어+하다' 형용사가 국어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7)]

논의의 진행에 대해 소개하면, 2장에서는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영어+하다' 형용사를 확인하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 분석을 통해 '영어+하다' 형용사들이 국어 내에서 어떤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의 유의 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영어+하다' 형용사들의 국어에의 정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영어+하다'류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1) 그로테스크하다(grotesque하다), 나이브하다(naive하다), 다이내믹하다(dynamic하다), 드라마틱하다(dramatic하다), 드레시하다(dressy하다), 디테일하다(detail하다), 로맨틱하다(romantic하다), 리드미컬하다(rhythmical하다), 리버럴하다(liberal하다), 리얼하다(real하다), 섹시하다(sexy하다), 센티멘털하다(sentimental하다), 쇼킹하다(shocking하다), 스마트하다(smart하다), 스펙터클하다(spectacle하다), 스포티하다(sporty하다), 시니컬하다(cynical하다), 아이러니컬하다(ironical하다), 아이러니하다(irony하다), 아카데믹하다(academic하다), 언밸런스하다(unbalance하다), 에로틱하다(erotic하다), 오토매틱하다(automatic하다), 와일드하다(wild하다), 캐주얼하다(casual하다), 컬러풀하다(colorful하다), 코믹하다(comic하다), 타이트하다(tight하다), 터프하다(tough하다), 파워풀하다(powerful하다), 핸섬하다(handsome하다), 히스테릭하다(hysteric하다)

7) 김광해(1990, 1998, 1999)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을 모아 놓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www.kci.go.kr

1)에서 제시한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8]과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에서 검색하여 추출한 것이다. ‘영어+하다’ 형용사는 이외에도 ‘시크하다, 러블리하다, 핫하다’ 등 실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어의 어휘로 공인되지 못한 형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전에 등재된 것들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1)과 유의 관계 분석의 일차 대상이 되는 국어의 기존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로 제시한 것들이다.[9] 순화어[10]는 사전편찬자들이 대응되는 외래어에 가장 비슷한 의미라고 판단하여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순화어들로 제시한 단어들은 대응되는 외래어와 유의 관계[11]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순화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유의어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 기술이 상호 교차 풀이인 경우가 많으므로 뜻풀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참고하여 유의 관계 분석 대상 어휘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기존어와 외래어의 유의 관계 분석은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어휘가 가진 의미적 다원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말뭉치 용례는 유용하다. 말뭉치 예문은 자연 언어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

8) <표준국어대사전>은 현재, 1999년 국립국어원에서 출판한 종이 인쇄본과 2009년부터 인터넷 웹상에 제공되고 있는 웹 사전이 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1999)을 DB화한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폭 수정한 부분이 있어, 기존의 표제어와 뜻풀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의 종이 인쇄본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 표제어들은 이 인쇄본에 등재된 것들인데, 일부 표제어는 현재 인터넷의 <표준국어대사전>으로 검색해보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밝히도록 하겠다.

9)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 순화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지침에는 순화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순화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순화어가 동의 관계 또는 유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인터넷 웹상에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기존에 제시하였던 순화어가 없거나 해당 표제어 자체가 제외된 경우도 더러 있다.

11)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동의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유의 관계 속에는 부분적 동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어휘의 개념 의미가 중첩되거나 한 어휘 의미가 다른 어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와 같이 포함 관계일 경우 상하 관계와 혼동될 위험이 있으나 상하 관계는 두 어휘가 서로 종개념과 유개념의 관계를 맺고 있으나 유의 관계의 두 어휘는 포함 계여도 서로 종개념과 유개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상하 관계와 유의 관계에 대한 변별은 이광호(2002)를 참고할 수 있다.

www.kci.go.kr

정제된 예문을 다룰 때보다 다양한 변수[12]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 단어가 쓰이는 환경을 거의 전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뭉치는 연구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말뭉치인 연세 말뭉치[14]를 사용하되, 말뭉치의 규모나 내용적인 측면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네이버의 신문 자료를 모아 놓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5]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신문 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신문 기사가 다른 자료에 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가 활발하게 쓰이고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어+하다' 형용사와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한 방법은 교체 검증과 결합 검증이다. 교체 검증은 동일한 문맥에서 의미의 차이가 없이 교체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교체 검증을 했을 때 교체가 안 되는 문맥을 통해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어휘의 외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체 검증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의어 변별 기제이다. 결합 검증은 어휘의 앞뒤 결합 관계를 확인하여 유의어 간의 결합 관계의 차이를 통해 의미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다. 형용사의 경우 명사류, 동사류와 같이 외연을 뚜렷하게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명사에 의지하여 외연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김광해1999:608). 따라서 형용사의 유의 관계를 변별함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논항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유효하겠다.

유의 관계를 분석할 때 반의어 검증과 배열 검증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단어에 반의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반의어로 제시한 단어들이 반드시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의어 검증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배

12) 모든 예문이 항상 완전할 수는 없으므로 예문이 틀릴 경우나, 수집된 문헌의 한계로 인한 말뭉치 자체가 가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3) 유현경(1998) 참고.

14) 연세말뭉치는 1990년~1998년까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한 언어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은 연세말뭉치 3~7이다. 말뭉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ilis.yonsei.ac.kr/)의 말뭉치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참고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신문 기사 자료로서 192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종이 신문을 원형 그대로 디지털화(디지타이징)하여 웹에 구현한 뉴스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www.kci.go.kr

열 검증은 정도성이 있는 어휘들을 비교할 때 유용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유의어 변별 기술에 있어서 의미자질을 설정하여 비교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의어군을 변별할 때는 체계적으로 의미를 기술하고 변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16] 그러나 유의어 쌍마다 의미 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유의어 쌍에 모두 의미자질을 설정해야 하며 의미자질 설정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 유의 관계 변별을 위해 의미자질을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3.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 분석

본고에서 ‘영어+하다’류 형용사와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존어와 거의 개념 의미[17]상의 차이가 없는 유형인 1유형, 개념 의미가 중첩되어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인 2유형, 유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형인 3유형이 그것이다.[18] 1유형은 ‘영어+하다’류 형용사와 기존어를 동일한 문맥에서 교체했을 때 의미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결합 관계의 차이도 뚜렷하지 않다. 이들의 경우 문체나 어감, 담화 맥락상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유형은 동일한 맥락에서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되나 특정 맥락에서 교체가 불가능한 경

16) 최홍열(2005ㄱ, ㄴ), 김은영(2004)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17) 개념 의미(conceptual meaning)는 외연적 의미(denotative meaning), 인지적 의미(cognitive meaning)라고도 하는데 어떤 낱말 스스로가 지닌 논리적, 외연적, 인지적 내용으로서 언어전달의 중심요소를 이른다. Leech(1974/1981)에서는 의미를 개념의미와 연상적 의미로 나누고, 연상적 의미에는 내포적(connotative), 사회적(social), 정서적(affective), 반영적(reflective), 연어적(collocative), 주제적(thematic) 의미를 포함시켰다(임지룡(1992:36-38) 재인용). 연상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덧붙는 전달가치, 문체적, 심리적, 청자의 반응, 화용 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쇼킹하다’와 ‘충격적이다’는 대치 검증이나 결합 검증을 통해서는 그 의미 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개념 의미 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둘은 사용하는 세대나 장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청자의 느낌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상적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용석(1981)에서는 Leech(1974/1981)의 의미 분류를 토대로 하여 개념의미가 중첩되는 둘 이상의 말짝을 유의어로 정의하고 있다.

18)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 ‘영어+하다’ 형용사가 기존어와 맺고 있는 유의 관계 유형을 말할 때는 1, 2, 3유형으로 언급하겠다.

www.kci.go.kr

우이다. 이 유형에는 중첩 관계와 포함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의어가 모두 포함된다. 3유형은 '영어+하다' 외래어가 어떤 기존어와도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이다.

우선 '영어+하다'류 형용사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순화어, <표준국어대사전>의 순화어를 토대로 본고에서 유의 관계를 검토한 기존어의 목록을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9].

<표 1> '영어+하다' 형용사와 유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존어

유형	'영어+하다' 형용사	<표준국어대사전>순화어	'영어+하다' 형용사와의 유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존어
1	다이내믹하다	생동적이다, 역동적이다	역동적(力動的)이다[20]
	드라마틱하다	표제어 미등록	극적(劇的)이다
	디테일하다	세밀하다, 미세하다, 섬세하다	세밀(細密)하다, 미세(微細)하다, 섬세(纖細)하다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낭만적(浪漫的)이다
	리드미컬하다	율동적이다	율동적(律動的)이다
	리얼하다	사실적이다, 현실감 있다	사실적(寫實的)이다[21]
	쇼킹하다	충격적이다	충격적(衝擊的)이다
	센티멘털하다[22]	제시되지 않음	감상적(感傷的)이다, 감정적(感情的)이다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	냉소적(冷笑的)이다
	아이러니하다	제시되지 않음	모순적(矛盾的)이다, 역설적(逆說的)이다
	아이러니컬하다	모순적이다, 역설적이다	모순적(矛盾的)이다, 역설적(逆說的)이다
	언밸런스하다	제시되지 않음	불균형적(不均衡的)이다

19) 실제 기존어의 목록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와일드하다'의 경우 '거칠다' 외에 '야성적이다, 야생적이다' 등등도 기존어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기존어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했을 경우 연구가 지나치게 방만해질 수 있다. 기존어끼리도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존어의 유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고, '영어+하다' 형용사와 같이 분석할 기존어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도 문제가 된다. 가능한 기존어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외래어 정착의 양상을 일반화시키는데 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면의 한계와 외래어 정착 양상을 연구하는 첫 출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순화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www.kci.go.kr

	오토매틱하다	표제어 미등록	자동적(自動的)이다
	에로틱하다	선정적이다	선정적(煽情的)이다, 관능적(官能的)이다[23]
	코믹하다	제시되지 않음	익살스럽다
	히스테릭하다	신경질적이다[24]	신경질적(神經質的)이다
2	그로테스크하다	기괴하다[25]	기괴(奇怪)하다
	나이브하다	제시되지 않음	순진(純眞)하다, 단순(單純)하다, 순수(純粹)하다
	리버럴하다	제시되지 않음	자유(自由)롭다, 자유(自由)스럽다,
	스마트하다	제시되지 않음	단정(端正)하다, 말쑥하다,
	아카데믹하다	학구적이다, 학문적이다	학구적(學究的)이다, 학문적(學問的)이다
	와일드하다	거칠다	거칠다
	타이트하다	팽팽하다, 빠듯하다, 밀도 있다	팽팽하다, 빠듯하다[26]
	터프하다	표제어 미등록	거칠다
	파워풀하다	표제어 미등록	강력(强力)하다
	핸섬하다	말쑥하다, 멋있다, 잘생기다	없음
3	드레시하다	멋있다, 근사하다, 우아하다	멋있다, 근사(近似)하다, 우아(優雅)하다
	섹시하다	관능적이다, 산뜻하다	관능적(官能的)이다[27]
	스포티하다	경쾌하다, 날렵하다	경쾌(輕快)하다, 날렵하다
	스펙터클하다	거대하다, 거창하다, 웅장하다	웅장(雄壯)하다
	컬러풀하다	다채롭다	없음
	캐주얼하다	제시되지 않음.	편(便)하다, 편안(便安)하다

20) ‘다이내믹하다’의 순화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생동적이다’가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 관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생동적’이라는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동적이다’는 ‘살아있는 듯 움직이다’는 의미로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와 개념적 의미가 다르다.

21) ‘리얼하다’의 순화어로 ‘현실감 있다’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단어가 아닌 구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연구 대상에 제외하였다.

22) 현재 인터넷 웹상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센티하다’가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다

23) ‘에로틱하다’의 순화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선정적이다’가 있으나 실제 ‘에로틱하다’는

www.kci.go.kr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모두 사전에서 검색한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고 연세에만 등재된 단어의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순화어’ 열에 ‘표제어 미등록’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었지만 순화어가 제시되지 않은 단어들의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또 유의 관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기존어를 보면 ‘-적이다’류의 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은 한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적이다’류의 어휘를 순화어로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영어+하다’ 형용사에 대응되는 유의어를 생각할 때 ‘-적이다’류 이외에 적합한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적이다’류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3.1. 1유형 – 기존어와 개념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

본 연구는 음상이 다른 두 어휘가 완전 동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념 의미는 같다고 해도 어감이나 문체상의 차이, 화용적인 쓰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쇼킹하다’의 경우 ‘충격적이다’와 별 차이가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50대 화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데, 이는 ‘쇼킹하다’와 ‘충격적이다’가 개념 의미는 같아도 사용할 수 있는 맥락이 다르고, 주로 사용하는 화자의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어+하다’ 형용사들 중에 이렇게 개념 의미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들이 있다. <표 1>에서 제시한 1유형이 그러하다.

‘다이내믹하다’와 ‘역동적이다’는 모두 ‘힘차고 활발하다’는 의미를 가진

‘관능적이다’와 의미가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관능적이다’를 추가한다.

24) 현재 인터넷 웹상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화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발작적으로 흥분하는 상태이다’라고 뜻풀이 되어 있다.

25) 현재 인터넷 웹상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화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괴하다’로 뜻풀이 되어 있다.

26) ‘타이트하다’의 순화어로 ‘밀도 있다’가 제시되어 있으나, ‘밀도 있다’는 엄밀히 말하면 단어가 아닌 구이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7) ‘섹시하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순화어는 ‘관능적이다’와 ‘산뜻하다’이다. ‘산뜻하다’는 ‘섹시하다’와 그 개념 의미가 크게 다르므로 유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은 기존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www.kci.go.kr

다.[28] 이들은 사람명사, 구체명사, 추상명사를 모두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가 논항으로 취하는 명사들의 의미를 보면, 인간의 움직임, 시각적인 이미지나 장면, 사건이나 일, 감정, 표정, 음악 등등 매우 다양하다. ‘다이내믹하다’와 ‘역동적이다’는 서로 교체해도 의미의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2) a. 김화백의 새로운 작품의 이미지들은 매우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
b. 그녀의 음악은 매우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특징을 가진다.
c. 러시아의 예브게이나 카나에바 선수가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d. 톱스타 김 씨는 이번 영화에서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 냈다.

‘드라마틱하다’와 ‘극적이다’는 모두 ‘극적인 특성을 띠다, 극과 같은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드라마틱하다’와 ‘극적이다’ 모두 ‘인생, 삶, 현실, 과정, 결말, 반전, 사건, 이야기’와 같은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며 동일한 문장에서 별 의미 차이가 없이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3) a.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낸 그의 인생은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다}.
b. 메에지 유신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드라마틱한, 극적인} 사건이었다.
c. 우리나라 작가들은 넓은 스케일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서 꾸며나가는 재능이 다른 나라 작가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d. 그 영화는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으로 끝을 맺는다.

‘디테일하다’와 ‘세밀하다’, ‘섬세하다’, ‘미세하다’는 ‘자세하고 꼼꼼하다, 정교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의미 차이가 크게 없어 동일한 문장에서 교체가

28) ‘힘차고 활발하다’는 ‘역동적이다’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다. 본 연구에서 단어를 비교하기 위해 뜻풀이를 제시할 때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였으며, 의미 변별을 위해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가 아님을 밝히고 의미를 기술했다.

www.kci.go.kr

가능하다. ‘디테일하다’, ‘세밀하다’, ‘섬세하다’, ‘미세하다’ 모두 ‘그림, 지도, 장식, 인형, 조각’과 같은 구체명사와 ‘표현, 묘사, 분석, 연구, 계획’ 등의 추상명사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4)는 구체명사, 5)는 추상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이다.

4) a. 네덜란드 정부는 탐험가들에게 새로 발견한 땅을 {디테일한, 세밀한, 섬세한, 미세한} 지도로 작성하고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b. 니샤오풍 씨는 밀가루 반죽으로 얼굴 표정까지 나타내는 {디테일한, 세밀한, 섬세한, 미세한} 인형을 만든다.
5) a. 이 연극은 이혼한 남녀의 심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미세하게} 그리고 있다.
   b. 탈모를 치료하려면 {디테일한, 세밀한, 섬세한, 미세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섬세하다’는 신체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면서 ‘곱고 가늘다’는 의미를 가지며, 사람명사나 ‘성격, 감정’ 등을 논항으로 취하면서 ‘감정이나 성격이 예민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디테일하다, 세밀하다’, ‘미세하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6) a. 그녀는 손가락이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미세하고, 섬세하고} 길었다.
   b. 호세는 어릴 적부터 상처받기 쉬운 {*디테일한, *세밀한, *미세한, 섬세한} 성격의 아이였다.

‘미세하다’는 ‘아주 작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디테일하다, 세밀하다, 섬세하다’는 교체될 수 없다.

7)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속에 사는 {*디테일한, *세밀한, *섬세한, 미세한} 식물로 중요한 식량자원이다.

정리하면 ‘디테일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순화어 중 ‘세밀

www.kci.go.kr

하다’와는 개념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섬세하다’는 ‘디테일하다’가 가지지 못하는 ‘곱고 가늘다’는 의미를, ‘미세하다’는 ‘아주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교하다’는 의미는 ‘디테일하다, 섬세하다, 미세하다’가 서로 공유하지만, ‘섬세하다’, ‘미세하다’는 각각 ‘디테일하다’와 공유하지 못하는 개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섬세하다, 미세하다’는 ‘디테일하다’와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디테일하다’는 3개의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나와는 거의 의미 차이가 없고, 2개와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기존어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라도 개념의미상의 차이가 발견하지 않으면 1유형으로 분류하겠다. 따라서 ‘디테일하다’의 경우는 1유형으로 분류한다.

‘로맨틱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현실적이 아니고 환상적이며 공상적이다’[29], <연세한국어사전>에는 ‘계산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낭만적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로맨틱하다’는 주로 사람명사,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명사들, 성격, 옷차림, 여행, 행동, 음악 등등의 다양한 명사들을 논항으로 취하며, ‘사랑과 관련되다,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다’의 의미도 지닐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낭만적이다’와 의미 차이 없이 동일한 문장에서 교체된다.

8) a. 그는 그의 소설 속에서 해적 행위를 {로맨틱한,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b. 계획하지 않고 훌쩍 떠나는 기차 여행이 얼마나 {로맨틱한가, 낭만적인가}?
   c.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이 시는 작가의 {로맨틱한, 낭만적인} 세계관을 보여 준다.

9) a. 나의 신랑은 기념일에 멋진 이벤트를 해 주는 {로맨틱한, 낭만적인} 사람이다.
   b. 이 커피숍은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고 {로맨틱한, 낭만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c. 허니문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은 모두 {로맨틱한, 낭만적인} 여행을 꿈꾼다.

29) <표준국어대사전>의 ‘로맨틱하다’의 뜻풀이는 ‘낭만적인 데가 있다’이다. 뜻풀이가 ‘낭만적이다’와 거의 비슷하여, ‘낭만적이다’의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www.kci.go.kr

‘리드미컬하다’와 ‘율동적이다’는 주로 음악이나 소리, 시각적인 이미지,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를 논항으로 취한다. ‘율동적이다, 리드미컬하다’는 기본적으로 ‘율동’과 ‘리듬’에서 파생된 단어들로 ‘움직임이 규칙적이고 경쾌하다’, ‘음악이나 소리의 리듬이 규칙적이고 경쾌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이 환유적 확장에 의해 시각적 이미지를 논항으로 취하여 ‘시각적 이미지의 느낌이 경쾌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리드미컬하다’와 ‘율동적이다’는 상호 교체가 가능하며, 의미의 큰 차이가 없다.

10) a. 수녀님의 음색은 명랑하고 {리드미컬했다, 율동적이었다}.
b. 그녀는 경쾌한 음악처럼 {리드미컬한, 율동적인} 걸음걸이를 갖고 있다.
c. 기하학적인 도시의 선이 {리드미컬하다, 율동적이다.}

‘리얼하다’와 ‘사실적이다’는 모두 ‘사실에 가깝다, 사실 그대로이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상호 교체가 가능하며 의미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

11) a. 영화 ‘황금연못’은 은퇴한 노부부의 갈등, 외로움, 자식들로부터의 냉대 등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b. 그녀는 {리얼한, 사실적인} 악역 연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미움을 샀다.
c. 심프슨의 소설은 확고하게 {리얼한, 사실적인} 사건들에 기초를 둔 판타지를 담고 있다.

‘쇼킹하다’, ‘충격적이다’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충격을 받을 만큼 놀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은 ‘일, 사건, 모습’ 등을 주로 논항으로 취하며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어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12) a. 배우 강 씨의 스캔들은 너무 {쇼킹해서, 충격적이어서} 신문에도 낼 수가 없다.
b. 2000년 들어 가장 {쇼킹한, 충격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일 것이다.

www.kci.go.kr

‘센티멘털하다’는 ‘감상적이다’와 함께 ‘지나치게 쉽게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특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역시도 별 의미 차이가 없이 동일한 문장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13) a. {센티멘털한, 감상적인} 분위기에 젖어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불현듯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는다.
b. 젊어서는 {센티멘털한, 감상적인} 감정에 빠져 젊어서 죽는 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적이다’의 예문에서 ‘감정적이다’를 ‘센티멘털하다’와 교체하는 것은 어색하다.

14) a. 한국 사람들은 결정에 있어서 {*센티멘털한,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b. IMF라고 해서 한국 사회가 {*센티멘털한, 감정적인} 외제 배척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c.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을 놓고 언론의 표현이 매우 {*센티멘털하다, 감정적이다}.

sentimental은 영영사전[30]에 ‘connected with your emotions, rather than reason’과 ‘(disapproving) producing emotions such as pity, romantic love or sadness, which may be too strong or not appropriate; feeling these emotions too much’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전자는 ‘감정적이다’의 의미와 가깝고, 후자는 ‘감상적이다’의 의미와 가깝다. ‘센티멘털하다’의 원어를 생각하면 14)의 예문에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는 sentimental이 국어에 들어와 두 번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정리하면 ‘센티멘털하다’는 ‘감상적이다’와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감정적이다’와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센티멘털하다’가 기존어 2개 중 하나와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센티멘털하다’를 1유형으로 분류한다.

30) 본 연구에서는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를 참고하였다.

www.kci.go.kr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는 ‘쌀쌀하게 비꼬는 태도가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는 모두 주로 말투, 표정, 태도 등을 나타내는 명사들과 사람명사를 논항으로 취한다. 이 둘은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어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15) a. 상윤이의 표정이 차갑고 {시니컬했다, 냉소적이었다}.
b. 결혼에 실패한 그녀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니컬한, 냉소적인} 말투로 바뀌었다.
c. 그는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컬하다’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만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아이러니하다’는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반대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아이러니하다’의 순화어로 ‘모순적이다, 역설적이다’가 제시되었으나, ‘아이러니하다’는 ‘역설적이다’와 의미가 가깝고, ‘모순적이다’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역설적이다’는 겉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만 진리를 담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로 ‘아이러니하다’와 동일한 문장에서 의미 차이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순적이다’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가리킬 때는 다 사용될 수 있어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컬하다’보다 그 의미 폭이 넓다.

16) a. 정보 공학의 첨단 기술인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이 아나로그적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손쉽게 해 준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모순적이다}.
b. 노예를 소유함으로써 폴리스의 시민이 거의 완전한 민주적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모순적이다}.

‘모순적이다’의 다음의 예문은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17) a. 목격자의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모순적이다}.

www.kci.go.kr

b. 그의 마음 속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과 그대로 남고 싶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모순적인}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의미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언밸런스하다’는 주로 패션이나 스타일 등의 논항과 주로 어울려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불균형적이다’는 ‘관계, 구조, 거래, 위치, 발전, 변화’ 등과 같은 추상명사들을 논항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의 이러한 사용은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 이들 동사의 개념상의 차이가 아닌 문체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예문에서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를 교체해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언밸런스하다’는 ‘패션, 스타일’ 등의 논항과 자연스럽고, ‘불균형적이다’는 ‘관계, 구조, 거래’ 등의 명사와 사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8) a. 그들은 검정 수트에 야구 모자를 쓴 다소 {언밸런스하면서도, ?불균형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복장으로 등장했다.
b. 요즘 왼쪽과 오른쪽의 머리 길이를 다르게 자르는 {언밸런스한, ?불균형적인} 헤어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19) a. 교환 이론에 따르면 사회생활은 끊임없는 교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언밸런스한, 불균형적인} 교환은 곧 불평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b. 현대인은 서구화된 식단으로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습관은 불규칙적이고 영양소 섭취는 {?언밸런스하다, 불균형적이다.}
c.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인구 분산이 {?언밸런스하다, 불균형적이다.}

‘오토매틱하다’는 ‘저절로 움직이거나 절차상의 제약이 없이 바로 실행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자동적이다’와 개념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과 같이 상호 교체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20) 자판기와 같은 {오토매틱한, 자동적인} 시스템은 잘 유지되다가도 몇 차례 고장이 나고, 교체되기를 반복한다.

www.kci.go.kr

다만, 이러한 교체는 문맥, 또는 문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동적이다'가 쓰인 용례에서 '오토매틱하다'[31]로 교체가 되기는 하나, 문맥상 어색한 경우가 있다.

21) a.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되면 그 지역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오토매틱한, 자동적인} 등록이 된다.
b. 미국 한 연구소에서는 최근 식물이 동물과 똑같이 아픔에 대해 {*오토매틱한, 자동적인}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에로틱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선정적이다'가 순화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의미상 '관능적이다'와 더 가깝다. '에로틱하다'와 '관능적이다' 모두 '성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데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큰 의미 차이 없이 동일한 문장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22) a. 앵그르의 여성 누드화는 {에로틱하고, 관능적이고} 이국적인 모습이다.
b. 이 광고는 두 남녀가 {에로틱한, 관능적인}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정적이다'는 '에로틱하다'와 달리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으며, 꼭 성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극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기도 한다.

23) 언론이 매우 {*에로틱해서, 선정적이어서} 항상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만 쓴다.

'에로틱하다'는 '선정적이다'와는 의미 차이가 있지만 관능적이다'와는 개념의미 상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1유형으로 분류한다.

'코믹하다'는 '익살스럽다'와 함께 '어떤 대상의 모습이나 분위기가 우습

31) 신문 기사 검색에서는 '오토매틱하다'의 형태는 거의 없고, '오토매틱'이라는 명사가 주로 검색되며, 말뭉치 용례에서도 '오토매틱하다'는 단 2개만 검색 되었다. 과 같다.

www.kci.go.kr

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코믹하다’의 논항이 되는 명사는 ‘연기, 분위기, 캐릭터, 이미지, 몸짓, 노랫말’과 같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대상이 올 수 있다.

24) a. 일일연속극에서 재치 있고 {코믹한, 익살스러운} 연기를 보인 김성찬이 올해 인기상 후보로 유력하다.
b. 전국노래자랑은 {코믹하고, 익살스럽고} 엉뚱한 해프닝이 이따금 벌어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히스테릭하다’와 ‘신경질적이다’는 ‘기분 나빠하고 성을 잘 내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주로 ‘성격, 캐릭터, 말투, 표정' 등 사람의 성질과 관련된 명사나 ‘반응, 대응, 대처’ 등의 명사, 사람명사를 논항으로 취한다. ‘히스테릭하다’와 ‘신경질적이다’는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25) a. 영희는 사업에만 몰두한 채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히스테릭한, 신경질적인} 증상을 보이곤 한다.
b. 아이가 공부 때문에 {히스테릭한,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c. 현실에 대한 상반된 인식으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이 아닌 {히스테릭한, 신경질적인} 대응을 계속했다.

3.2. 2유형 -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

‘영어+하다’류 형용사 중의 많은 수가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기존어와 동일한 의미 영역을 공유하기도 하나 기존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로테스크하다’와 ‘기괴하다’는 모두 ‘어떤 대상의 겉모습이나 분위기가 보거나 느끼기에 괴상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분위기, 의상, 가면, 이야기 음악, 모습, 색깔’ 등의 논항이 올 수 있다. 이때 ‘기괴하다, 그로테스크하다’는 ‘못생기고 이상하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도 있다.

www.kci.go.kr

26) a. 그 여가수의 소고기로 만든 옷은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b. 추 씨는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분장으로 반인반수의 피터 역을 열연해 모노드라마의 일인자가 되었다.
c.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의 노래가 다소 어둡고 {그로테스크하다, 기괴하다}.

그러나 '기괴하다'는 부정적인 판단이 없이 모양이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7) a. 심해에는 {기괴하게, *그로테스크하게} 생긴 바다 생물들이 많다.
b. 최고봉인 천황봉을 비롯해 구정봉, 장군봉, 향로봉, 도갑산으로 이어지는 산 전체가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암석으로 장식되어 둘러보는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또 '기괴하다'는 '논쟁, 풍조, 일, 논평, 음모, 결합, 형국, 사고' 등등의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로테스크하다'는 '기괴하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28) a. 이제는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b. 함 값이 적다고 신혼부부가 싸움 끝에 자살하는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일이 발생했다.
c. 북한의 3대 세습은 {*그로테스크하기,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d.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짓은 나라 망신이다.

정리하면 '기괴하다'는 '그로테스크'보다 더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로테스크하다'는 구체명사를 논항으로 취하여 외양이 이상하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사용되지만, '기괴하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없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모두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나이브하다'는 '단순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www.kci.go.kr

있다. ‘단순하다’는 ‘복잡하지 않다’는 의미를, ‘순진하다’와 ‘순수하다’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순진하다’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으며, ‘순수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없이 긍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단순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는 각각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브하다’는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한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을 보면 ‘나이브하다’가 각각 이 세 기존어와 동일한 맥락에서 교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 a. 그룹의 멤버 영희가 탈퇴한 것은 정말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취향 차이 때문이다.
b.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혜림의 심리 묘사가 섬세하지 않아 인물이 너무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느껴진다.

30) a.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나이브한, 순진한} 발상이다.
b. 선의를 갖고 다가가면 인간의 상처는 치료되고 사회 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나이브한, 순진한} 세계관일 뿐이다.

31) a. 영화 속에서 바스크족 추장으로 나오는 그의 {나이브한, 순수한} 연기가 인상적이다.
b. 그는 매우 {나이브한, 순수한} 매력을 발산한다.

종합하면 ‘심플하다’는 ‘복잡하지 않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린 아이 같다(긍정, 부정의 어감 모두 포함), ‘(긍정적인 어감의)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각각 이 의미를 가진 ‘단순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와 모두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리버럴하다’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의식이 얽매임이 없다’는 의미를 가질 때는 ‘자유롭다’ 모두 교체가 자연스럽다.

32) a. 영국 학교라고 하면 {리버럴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남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오가는 모습이 연상되는 모양이다.

www.kci.go.kr

b.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리버럴한, 자유로운} 국가이다.
c. {리버럴한, 자유로운} 성향이 강한 젊은 직원들은 예민한 사안에도 거침없이 자기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리버럴하다'는 '자유롭다'와 달리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수에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자유롭다'는 교체될 수 없다.

33) a. 슈람의 배경을 보면 그가 {리버럴한, *자유로운} 혹은 좌파적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대학이 폐쇄되고, {리버럴한, *자유로운} 신문들이 문을 닫았으며, TV방송국이 대통령의 통제에 들어갔다.
c. 그녀는 비록 공화당원이지만 성향이 {리버럴해서, *자유로워서} 낙태, 줄기세포, 환경보호, 동성애 권리 등에서 공화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자유롭다'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자유롭다'와 교체되는 것이 어색하며 '자유분방하다'와 교체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4) 그는 {리버럴한,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성도덕을 가지고 있다.

즉, '리버럴하다'는 '자유롭다'와 함께 '어떤 사고나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 혹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자유분방하다는 의미는 '자유롭다'가 가지지 않는 '리버럴하다'만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하다'는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때는 '말쑥하다, 단정하다'와 상호 교체가 가능하고, 주로 '스타일, 옷차림, 사람명사' 등의 명사들을 논항으로 취한다.

35) 화이트 셔츠와 깔끔한 디자인의 넥타이는 {스마트한, 단정한, 말쑥한} 스타일을

www.kci.go.kr

완성시켜 준다.

그러나 ‘말쑥하다’는 사물명사를 논항으로 취하여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정하다’는 ‘태도나 몸가짐이 얌전하고 바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때는 ‘스마트하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36) a. 우리가 방문한 집은 아주 {*스마트하게, 말쑥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b. 그는 {*스마트하게, 말쑥하게} 포장한 상자를 풀었다.
37) 송 선생은 평소 태도가 {*스마트하고, 단정하고} 점잖을 뿐더러 인품 또한 엄정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스마트하다’도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깔끔하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하다’는 ‘머리가 좋다, 효율적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말쑥하다’, ‘단정하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38) a. 김정남 씨는 매우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고, *말쑥하고, *단정하고} 소탈한 분이다.
b. 공무원 개개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정부 조직이 100% {스마트하게, *말쑥하게, *단정하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아카데믹하다’는 ‘학구적이다, 학문적이다’의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학구적이다’는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성질이 있다’, ‘학문적이다’는 ‘학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아카데믹하다’는 ‘학구적이다, 학문적이다’의 예문 모두와 교체가 자연스럽다.

39) a. 그는 그의 은사에게서 {아카데믹한, 학구적} 태도와 인격적 자세를 배웠다.
b. 그의 아버지는 직업이 변호사였지만 학자라는 평을 받을 만큼 {아카데믹한,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c. 이곳은 대학가 주변이라 {아카데믹한, 학구적인} 분위기가 동네 전체를 감싸고 있다.

www.kci.go.kr

40) a. 저는 15년 동안 언어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것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40여 종의 교재를 직접 쓰면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b. 이 학장은 교수진 구성과 관련하여 3분의 1은 강단에 있는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분들로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산업계 경험이 있는 분들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카데믹하다'는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이면서 '예술성이 교육으로 답습되거나 형식적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학구적이다, 학문적이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41) a. 피카소는 10대 때 이미 {아카데믹한, *학구적, *학문적} 화풍을 버렸고, 92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았다.
b. 밀레는 파리의 아틀리에에 틀어박혀서 {아카데믹한, *학구적, *학문적} 그림을 그렸던 기존의 화풍을 거부하고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다.
c. 에릭 사티는 어렵고 형식에 얽매인 {아카데믹한, *학구적인, *학문적인} 음악은 지양했다.

'와일드하다'는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의 의미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로 제시된 '거칠다'와 자연스럽게 교체가 된다. 주로 '게임, 경기, 플레이'와 같은 스포츠 관련 명사나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는 것을 아래의 용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2) a. 타이 선수들은 경기 후반에 들어서 다리를 걸고 팔꿈치로 치는 등 {와일드한, 거친} 플레이를 일삼아 주심에게 주의를 받았다.
b. 선수들이 피 튀는 전쟁터에서 뛰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경기는 {와일드했다, 거칠었다}.

43) a. 지난해 9월 청소년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 그는 행동파인 {와일드한, 거친} 캐릭터에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

www.kci.go.kr

b. 여성 작가는 매우 섬세하게, 남성 작가는 다소 {와일드한, 거친} 성격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와일드하다’는 ‘강한 분위기를 풍기다’의 의미일 때, 주로 패션과 관련된 명사가 논항으로 오고, ‘정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거칠다’와 교체되지 않는다.

44) a. 해변에서는 섬세한 목각보다는 투박하고 {와일드한, *거친} 액세서리가 제격이다.
b. 옷걸이에 걸려있던 셔츠를 {와일드하게, *거칠게} 걸치고 한쪽 귀에 귀걸이를 꽂는다.
c. 2인조 남성 댄스그룹 클론은 내달 대형 호텔에서 섹시하고 {와일드한, *거친} 콘서트를 갖는다.

‘거칠다’도 ‘어떤 대상의 표면이 결이 곱지 않고 험하다’, ‘파도나 바람의 기세가 험하고 거세다’, ‘인정이 메마르고 살기가 어렵다’, ‘가루나 알갱이가 굵다’, ‘음식이 맛과 영양이 적고 부드럽지 아니하여 험하다’는 의미를 지닐 때는 ‘와일드하다’가 교체될 수 없다.

45) a. 컬러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표면이 {*와일드해, 거칠어} 눈에 자극을 준다.
b. 인도양은 파도가 {*와일드해서, 거칠어서} 모두들 출어를 망설이던 곳이다.
c. 촌장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 {*와일드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규칙이었다.
d. 흑설탕 팩이라 알갱이가 {*와일드할, 거칠} 것이라 생각했으나 입자가 매우 곱다.
e. {*와일드한, 거친} 음식일수록 우리 몸에 좋다고 한다.

‘타이트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로 제시된 ‘팽팽하다’, ‘빠듯하다’의 의미의 일부분을 포함하며, 그 외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먼저 ‘타이트하다’가 ‘승부’와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여 ‘경기가 승패를 알 수 없어 긴장감이 넘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경우 ‘팽팽

www.kci.go.kr

하다’와 교체될 수 있다. ‘빠듯하다’는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다.

46) 남자 탁구 단식에서 폴란드 선수는 게임 스코어 2:2의 {타이트한, 팽팽한, *빠듯한} 승부를 이루던 북한의 김성희를 마지막에 꺾었다.

또한 ‘타이트하다’는 ‘일정, 계획, 시간’과 같은 명사, ‘정책, 자금, 돈’을 논항으로 취하여 ‘여유가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 ‘빠듯하다’와 교체가 가능하며, ‘팽팽하다’와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47) a. 전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어느 대통령의 스케줄보다 한층 더 쉴 틈 없이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빠듯하게} 짜여져 있다.
b. 현역 군인들의 유격훈련을 방불케 하는 고된 교육과정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빠듯하게} 계속된다.

48) a.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빠듯하게} 운용되는 통화 정책에 금융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b. {타이트한, *팽팽하게, 빠듯한} 자금 사정을 견디다 못해 도산하는 중소 기업들이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트하다’는 ‘경기의 긴장감이 넘치다’는 의미를 지닐 때는 ‘팽팽하다’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엄격하다’는 의미를 지닐 때는 ‘빠듯하다’와 의미를 공유하지만 ‘팽팽하다’와 ‘빠듯하다’는 ‘타이트하다’와 공유하지 않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팽팽하다’는 실제 ‘줄 따위가 늘어지지 않고 힘 있게 곧게 펴져서 튀기는 힘이 있다’, ‘(서로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곧 터지거나 충돌할 듯한 상황에 있다’, ‘(무엇인가를 두고 겨루려는) 양쪽의 힘이 서로 비슷하여 만만치 않다’는 의미를 지닌다. ‘팽팽하다’의 이 세 의미 중 ‘타이트하다’와 공유하는 의미는 마지막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운동경기와 관련되어 쓰일 때만 그렇고, 논항이 ‘주장, 의견, 대립’ 등이 올 때는 ‘타이트하다’와 의미를 공유하

www.kci.go.kr

지 않는다.

49)[32] a. 덕보는 입구 쪽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여 무릎보다 조금 낮게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밧줄을 쳤다.
b.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 간에 {*타이트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c. 회의 때마다 계속 {*타이트하고, 팽팽하고} 열띤 토의가 반복되었다

‘빠듯하다’는 더 다양한 논항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타이트하다’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즉 ‘빠듯하다’와 ‘타이트하다’와 여유가 없다는 의미를 공유하나 취할 수 있는 논항에 있어서 ‘빠듯하다’가 ‘타이트하다’보다 더 넓다.

50) a. 말이 사 킬로미터지, 산길로 십리 길이니 숙련된 등반객들도 한나절 길이 {*타이트하다, 빠듯한} 거리였다.
b. 한 가족이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식량 사정이 {*타이트했다, 빠듯했다}..
c. 그녀는 {*타이트한, 빠듯한} 형편에 아둥바둥 살아야 했다.

‘타이트하다’는 ‘팽팽하다’, ‘빠듯하다’와 공유하지 않는 ‘밀도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주로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명사가 논항으로 온다.

51) 회상 기법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교차시키는 컷백 수법이 훨씬 더 드라마를 타이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외에도 ‘타이트하다’는 옷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여 ‘꽉(쫙) 붙다’, ‘꽉 끼다’는 뜻으로 쓰인다.

52) 크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옷에 타이트한 레깅스와 하이힐로 긴장감을 준다.

32)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발췌한 예문.

www.kci.go.kr

53) a. 깊은 러프에서도 일정한 스윙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이트한 그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골프 관련)
b. 기존의 독일 차는 핸들링이 타이트하고 서스펜션이 뻣뻣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대신 승차감을 희생한 것입니다.

53)의 '타이트하다'는 영어 원어의 'tight'가 지닌 다른 의미로 판단된다. a의 의미는 영영사전의 'tight'에 첫 번째 의미인 'held or fixed in position firmly; difficult to move or undo'에 해당되고 b는 영영사전의 열 번째의 의미인 'curving suddenly rather than gradually'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tight'가 국어에 들어올 때 원어가 지닌 다양한 의미 중 국어에서는 그 중 일부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순화어도 결국은 'tight'가 지닌 원래 의미 중 일부인 셈이다.

'터프하다'는 '씩씩하고 남자답다[33]'는 의미로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섹시하다'와 함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 형용사이기도 하며, '와일드하다'와 마찬가지로 주로 '거칠다'와 교체가 가능하다.

54) a. 작품 한 편으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다른 신세대 스타와는 달리 {터프한, 거친} 이미지에 강렬하고 애잔한 눈빛이 매력이다.
b. 영화배우 김보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터프한, 거친} 액션 배우잖아요.

한편 '터프하다'가 아래와 같이 특별히 '남성미가 있어 강하거나 강해 보이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거칠다'와 교체되지 않는다.

55) a. 그의 방은 온통 {터프해, *거칠어} 보이는 가죽 제품 일색으로 장식되었다.
b. 많은 남자들에게 군 생활이란 제대 훨씬 뒤에도 입대 악몽을 꾸게 할 만큼 끔찍한 경험이면서 남들 앞에선 {터프함, *거침}을 과시할 수 있게 하는 요긴한 경력이기도 하다.

33) 참고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터프하다'를 '거칠고 남자답다'로 뜻풀이하였다.

www.kci.go.kr

‘거칠다‘가 45)의 예문에서 확인했던 의미로 사용될 경우 ’터프하다‘와 교체가 어렵다.

‘파워풀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연세한국어사전>에만 등재된 단어로 제시된 순화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력하다’와 비교해 보았다. ‘파워풀하다’는 ‘매우 힘이 있다, 에너지가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소리, 음악, 노래, 보컬, 가창력, 무대’등의 소리나 음악과 관련된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강력하다’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56) 그 여가수는 {파워풀한, *강력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

‘샷, 플레이, 경기, 댄스’ 등 스포츠에서의 움직임이나 춤과 관련된 명사, 사람의 모습과 관련된 명사나 사람명사를 논항으로 취할 경우 ‘파워풀하다’는 ‘강력하다’와 교체가 가능하다.

57) a. 그들은 이전보다 더 {파워풀한, 강력한} 댄스를 선보였다.
b. 그는 {파워풀한, 강력한} 드리블과 기술, 빠른 스피드로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 중이다.
c. 우리가 보는 그녀의 모습은 항상 {파워풀하다, 강력하다}.

‘파워풀하다’, ‘강력하다’는 ‘상품이나 물건의 성능이 매우 좋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 경우 ‘파워풀하다’와 ‘강력하다’는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58) a. 이번에 새로 개발한 컴퓨터는 {파워풀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b. 이 펀드는 최근 나온 것들 중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금융 상품이다.

‘강력하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파워풀하다’에는 이런 의미는 없다.

59) 우리팀은 {*파워풀한,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핸섬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풍채가 좋거나 깔끔하

www.kci.go.kr

게 잘생기다'로 되어 있는데, '멋있다'와, '말쑥하다'가 순화어로 제시되어 있다[34]. 그러나 실제 용례를 살펴본 결과, '잘생기다'와 주로 교체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그 내용이 '얼굴'에 대한 묘사일 경우에는 '잘생기다'와 교체하면 매우 자연스럽다.

60) a. 그는 총리를 지내면서 {핸섬한, 잘생긴} 용모와 상식적인 언행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었다.
b. 그의 얼굴은 갸름하고 {핸섬했다, 잘생겼다}. 눈매가 날카로웠으나 {핸섬한, 잘생긴} 얼굴이 그의 눈매를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핸섬하다'는 '사람의 차림새가 멋지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경우 '잘생기다'는 교체가 불가능하고 '말쑥하다'와 교체가 가능하다. '잘생기다'는 사람의 얼굴을 묘사하는 데만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61) a. 그는 항상 {핸섬한, 말쑥한, *잘생긴} 정장 차림에 재미교포 행세를 하며 그랜저 승용차를 끌고 다녔다.
b. 엄마는 지난 방학에도 교복을 {핸섬하게, 말쑥하게, *잘생기게} 차려입은 오빠를 데리고 내려와 방학을 보내는 동안 은근히 자랑을 했다.

그리고 '잘생기다'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핸섬하다'는 그렇지 않다.

62) 인삼도 {*핸섬하게, 잘생겨야} 제값을 받는다.

물론 '핸섬하다'의 거의 대부분의 예문은 '멋있다'와도 교체될 수 있으나, 그 역은 잘 성립하지 않는다. '핸섬하다'는 주로 남자의 외모나 스타일이 멋질 때만 사용하지만, '멋있다'는 그 외연이 훨씬 넓어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대상의 외양이나, 사람의 내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멋있다'의 개념의미가 '핸섬하다'보다 그 영역이 훨씬 넓은 것이다.

34) 참고로 현재 웹 사전에는 '멋있다'만 순화어로 제시되어 있다.

www.kci.go.kr

63) a. "배 이사 참 멋진 분이야. 생기기도 {핸섬하게, ?멋있게} 생겼지만 우리 회사에서 제일가는 젠틀맨이야."
b. 훌쭉하면서도 {핸섬한, 멋있는} 인상을 주는 이 사내는 눈빛을 빛내면서 나를 보았다.

정리하면 ‘핸섬하다’는 ‘잘생기다’와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가 멋있다는 의미를 공유한다. 그러나 ‘잘생기다’는 논항이 사람이 아닐 경우에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다. ‘멋있다’는 ‘핸섬하다’보다 그 의미가 훨씬 넓고, ‘말쑥하다’는 일부 의미에서만 ‘핸섬하다’와 중첩된다. 따라서 ‘핸섬하다’는 2유형으로 분류한다.

3.3. 3유형 -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유형

‘영어+하다’ 형용사들 중에서는 기존의 어떤 어휘와도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경우가 있다. 이들은 기존어와 개념 의미가 다르다.

‘드레시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순화어로 ‘멋있다, 우아하다, 근사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드레시하다’는 주로 여성의 옷차림이나 옷, 패션을 논항으로 취하여 여성스럽고 우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64) a. 허니문을 위해 신혼 무드에 어울리는 블라우스나 드레시한 원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b. 플라스틱 살에 레이스로 바탕을 댄 부채는 드레시한 패션을 즐기는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다.
c. 이 목걸이는 드레시한 의상과 캐쥬얼한 의상 모두에 매치가 가능한 아이템이다.
d. 그녀는 메이크업을 하고 드레시한 옷차림으로 대중들 앞에 서기도 하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의 예문을 보면 모두 여성의 옷, 패션 등이 ‘드레시하다’의 논항으로 오고 있다. 또한 ‘드레시하다’는 캐주얼한 의상과 상반된 여성스런 옷차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멋있다, 우아하다, 근사하

www.kci.go.kr

다’가 ‘드레시하다’와 교체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멋있다’는 여성스러운 옷차림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패션이나 남성의 옷차림이 근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근사하다’도 역시 여성스러운 옷차림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이다. ‘우아하다’는 ‘드레시하다’와 가장 근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여성스런 옷차림뿐만 아니라 매우 포멀한 스타일의 옷차림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몸짓, 행동, 표정 등등 다양한 논항과 결합이 가능하다.

즉 ‘드레시하다’에 비해 ‘멋있다, 근사하다, 우아하다’가 차지하는 의미 영역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념 의미가 다른 것이다. ‘드레시하다’는 ‘(여성의 옷차림)이 우아하고 여성스럽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멋있다’는 ‘보기가 좋다’, ‘근사하다’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다’, ‘우아하다’는 ‘아름답고 품위가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멋있다, 근사하다, 우아하다’는 모두 ‘보기에 좋다’라는 큰 의미로 묶이는데, ‘드레시하다’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들에 비해 매우 좁은 경우에 사용되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멋있다, 근사하다, 우아하다’와 ‘드레시하다’는 유의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섹시하다’의 순화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산뜻하다’가 제시되어 있으나 ‘성적 매력이 있다’의 의미를 가진 ‘섹시하다’와 ‘산뜻하다’는 전혀 공유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뜻하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 대신 ‘관능적이다’와의 유의 관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섹시하다’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된다. ‘섹시하다’는 ‘모습, 신체의 한 부분, 이미지, 분위기, 의상’ 등등의 명사와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사람명사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관능적이다’는 ‘섹시하다’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섹시하다’가 좀 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듯하다.

65) 여가수 이 씨는 섹시한 매력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관능적이다’의 예문은 ‘섹시하다’와 교체될 수 없다.

66) a. 브람 스토커가 쓴 소설은 {*섹시한, 관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www.kci.go.kr

b. 신고전주의는 18세기의 너무나 {*섹시한, 관능적이고} 퇴폐적 현상을 보이던 로코코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
c. {*섹시한, 관능적인} 사랑은 진실함이 없고 지조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관능적이다’와 ‘섹시하다’의 개념의미상의 차이 때문이다. ‘관능적이다’는 ‘육체적 쾌감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능적이다’가 ‘섹시하다’의 예문에서 교체가 가능한 것은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말은 육체적 쾌감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관능적이다’의 예문은 대상이 성적인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육체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섹시하다’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스포티하다’는 주로 옷차림, 옷, 신발, 패션, 가방, 신발 등의 논항과 결합하여 ‘형식적이지 않고 캐주얼하다, 운동하기에 적합한 것 같은 스타일이다’는 의미를 가진다.

67) a. 이번 S사의 구두는 스포티한 스타일이다.
b.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스포티한 차림으로 숙소에서 나왔다.

이들 예문에 ‘경쾌하다’는 교체가 가능하며, ‘날렵하다’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날렵하다’는 ‘동작이 재빠르고 날래다, 외관이 매끈하고 맵시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스포티하다’와 개념적 의미가 전혀 다르므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경쾌하다’는 교체가 가능하나 그 의미는 차이가 있다. ‘경쾌하다’가 옷차림이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서술하는데 사용될 경우에는 ‘명랑하고, 발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경쾌하다’와 개념 의미가 다른 것이다. ‘경쾌하다’는 옷차림이나 스타일뿐만 아니라 ‘몸짓, 박자, 음악, 노래, 문체, 무늬’ 등등 다양한 논항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지만, ‘스포티하다’는 이들 논항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없다. 이는 ‘경쾌하다’와 ‘스포티하다’의 개념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티하다’는 기존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펙터클하다’는 ‘호화로운 구경거리가 가득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주로

www.kci.go.kr

영화, 공연, 무대 등을 논항으로 취하며, ‘경기력, 경기’, ‘이야기’ 등이 논항으로 오기도 한다.

68) a. 연기파 배우 20여명이 {스펙터클한, ?거대한, *거창한, 웅장한} 무대를 꾸민다.
b. 영화 사상 최초로 전편 4D로 상상을 뛰어넘는 {스펙터클한, *거대한, *거창한, 웅장한} 영상이 펼쳐질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가 개봉했다.
c. 이번 월드컵 평가전은 {스펙터클한, *거대한, *거창한, *웅장한} 경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d. 이 영화는 드래곤 사냥에 소질이 없는 사고뭉치 소년이 부상당한 드래곤을 돌보면서 겪는 {스펙터클한, *거대한, *거창한, 웅장한}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다.

‘거대하다’는 위의 예문을 보면 a를 제외하고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거대하다’는 크기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경거리가 많다는 의미는 없다. a.의 예문에서 ‘거대하다’가 교체될 수 있으나 의미는 다른데, 볼 거리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예는 ‘거대하다’가 주로 취하는 논항들이다. a는 구체명사, b는 추상 명사인데, 모두 ‘스펙터클하다’가 논항으로 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69) a. 거대한 {습지, 밀림, 호수, 쓰레기장, 수로, 하천, 도시, 박물관, 여당, 왕국...}
b. 거대한 {변화, 영향력, 힘, 산업, 시장, 국력, 규모, 조직...}

‘거창하다’는 ‘일의 형태나 규모가 매우 크고 넓다’의 의미를 가진다. ‘거창하다’는 말뭉치 상에서 주로 부사 ‘너무’와 자주 나타나는데, 적절한 정도 이상으로 그 크기가 크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창하다’는 ‘스펙터클하다’와 잘 교체되지 않는다.

70) a.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식으로 너무 {*스펙터클하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b. 화장실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스펙터클하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

www.kci.go.kr

을까?

c. 국가의 틀을 바꾼다는 {*스펙터클한, 거창한} 목표는 고사하고 공공개혁이라는 소극적인 목표에도 저항은 컸다.

‘웅장하다’는 ‘규모가 크고 성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펙터클하다’가 논항으로 이야기, 영화, 영상 등을 취하면 ‘웅장하다’와 잘 대치가 된다. 그러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웅장하다는 시각적인 볼거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명사나 음악, 필체 등의 추상 명사도 논항으로 취하는데, 이때는 ‘스펙터클하다’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71) a. 산세가 {웅장하고, *스펙터클하고} 기이하다.

b.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스펙터클한} 궁궐도 주인을 잃으면 폐허처럼 쓸쓸해진다.

c. 음악 소리가 {웅장하다, *스펙터클하다}.

‘컬러풀하다’는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가 한데 어울려 다양하고 화려하다’는 뜻으로 주로 옷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로 제시한 ‘다채롭다’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72) a. {컬러풀한, *다채로운} 카디건과 매치하면 편안한 차림이 완성되고, 지퍼가 달린 손가방과 함께 코디하면 한결 활동적으로 보인다.

b. 바로 내 눈 앞에서 긴 머리를 염색한 글래머인 여자가 {컬러풀한, *다채로운} 옷을 입고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다.

‘다채롭다’의 의미에 ‘종류가 다양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컬러풀하다’는 ‘색깔이 다양하거나 화려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채롭다’가 ‘(종류가) 다양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컬러풀하다’와 교체될 수 없다.

73) a.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환경 한마당’ 행사가 {다채롭게, *컬러풀하게} 펼쳐졌다.

www.kci.go.kr

b. 홍 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을 비롯하여 수상경력이 {다채롭다, *컬러풀하다}.
c. 현대의 학문은 매우 다양하게 세분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각 분야마다의 연구 방법이 그만큼 {다채롭다, *컬러풀하다}.

'캐주얼하다'는 '격식에 구애 받지 않은 옷차림을 하다'의 의미로 거의 패션과 관련된 기사에서 용례가 많이 나타난다. '캐주얼하다'는 때로는 '편(안)하다'와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 개념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74) a. 이 옷은 가슴선부터 통자로 떨어지는 {편한, 편안한, 캐주얼한} 스타일로, 통이 넓어 활용하기 편하다.
b.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편안한, 편한} 디자인의 슬리퍼형 샌들.
c. 내게 양복이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캐주얼한, 편한, 편안한} 복장이다.

74a, b)를 보면 '편하다, 편안하다, 캐주얼하다'가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교체가능하다. 이는 캐주얼한 복장은 격식에 구애 받지 않은 옷차림이다 보니 편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개념의미는 같지 않지만 이 형용사들이 서술하는 그 대상을 겹칠 수 있다. 74c)를 보면 '캐주얼하다'가 기존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양복과 같은 정장 차림은 공적인 자리에서 갖춰서 입는 것이므로 캐주얼하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편한, 편안한 차림일 수 있다.

한편, '캐주얼하다'는 '의상 또는 스타일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편하다, 편안하다'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75) 요즘 젊은 층에서는 깃이 달린 셔츠보다는 목이 올라오는 터틀넥이나 라운드로 된 셔츠를 입는 {캐주얼한, *?편안한, *?편한} 룩이 유행하고 있다.

4. '영어+하다'류 형용사와 기존어의 유의 관계 양상

외래어가 국어에 들어오면 이들은 국어에 있었던 기존어와 여러 가지 계

www.kci.go.kr

열 관계를 맺으며 국어의 어휘부에 정착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가 국어에 들어와 어떤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국어의 다른 어휘들과 공존하고 있는지를 유의 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국어에 들어와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기존의 어휘와 유의 관계를 맺고 정착해 있다. 이들이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양상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하다’ 형용사가 기존어와 맺고 있는 유의 관계 양상을 정리할 것이다.

‘영어+하다’ 형용사들 중에서는 기존어와 별 의미 차이가 없이 공존하는 것들이 있다. <표 1>에서 제시한 1유형에 속한 것이 그러하다. 1유형에 속한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기존어와 개념 의미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맥락에서 기존어와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1유형에 속한 ‘영어+하다’ 형용사들이라고 해도 화용적인 맥락이나 문체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쇼킹하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였다. ‘쇼킹하다’와 ‘충격적이다’가 그 개념의미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사용하는 화맥이 다르고, 이 단어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연령층[35]이 있는 것이다.

‘언밸런스하다’의 경우 ‘불균형적이다’와 개념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18, 19)의 예문에서 우리는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가 주로 결합하는 논항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했다. 실제 말뭉치와 인터넷 용례를 보면 이는 경향성이 차이로 나타날 뿐, 결합 가능한 논항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개념 의미상의 차이가 없으며, 논항 결합이 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를 1유형으로 분류했다.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가 보이고 있는 결합하는 논항 유형의 경향의 차이는 문체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언밸런스하다’는 ‘연예, 스포츠, 패션’ 관련된 기사에서 많이 발견되며, ‘불균

35) 본 연구에서 다룬 ‘영어+하다’ 외래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어들이기는 하나 실제 그 사용은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많은 종류의 ‘영어+하다’ 형용사들을 젊은이들의 대화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보는 패션 잡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www.kci.go.kr

형적이다'는 신문 기사 중에서도 경제, 의학과 관련된 다소 딱딱한 내용의 정보전달 글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는 '언밸런스하다'와 '불균형적이다'가 개념의미 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용에 적합한 문체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6]

1유형에 속하는 '영어+하다'형용사들은 기존어와 개념 의미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형성이 잉여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37] 그러나 1유형에 속하는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문체나 어감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유형의 '영어+하다' 형용사의 출현은 새로운 어감을 가진 새로운 기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화자의 욕망과 외래어의 간섭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영어+하다' 형용사들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2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다. 2유형의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기존어와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가지고 있다. 2유형의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기존어와 중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와 포함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어와 중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하다, 와일드하다, 타이트하다, 터프하다, 파워풀하다, 핸섬하다'가 있다. 이들은 기존어와 겹치는 의미 영역도 가지고 있지만, 이들과 기존어가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 영역도 있다. 기존어와 포함관계를 맺고 있는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다시 외래어가 기존어를 포함하는 경우와 기존어가 외래어를 포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나이브하다, 리버럴하다, 아카데믹하다'가 있으며, 후자는 '그로테스크하다,'가 있다.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영어'의 형용사가 국어에 들어와 국어의 형용사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 형용사는 명사성 형용사로서 문법적 특성이 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영어' 형용사들이 국어에 들어와 국어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다'와 결합하여 '영어+하다' 형용사가 형성된

36) '영어+하다' 형용사와 기존어가 보이는 문체상의 차이는 사용역 별로 구분된 말뭉치를 구성하여 빈도를 확인하고, 용례의 주제나 주로 결합하는 논항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7) 민현식(1998:98)에서는 이들 '영어+하다'형용사들이 기존어와 의미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잉여적이며, 순화의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영어+하다' 형용사들이 개념적이든, 화용, 문체적이든 기존어와 변별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잉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www.kci.go.kr

다.[38] ‘영어+하다’는 원어인 영어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국어에 들어오는데, 형용사의 의미는 성질, 상태, 감각, 심리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 영역을 가진 기존어들이 존재한다.[39] 따라서 ‘영어+하다’ 형용사는 국어의 기존어들과 유의 관계를 맺으며 국어 내에서 의미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그 양상은 다양해서 ‘나이브하다’처럼 영어의 ‘naive’의 본래의 의미 영역이 넓어서[40] ‘나이브하다’도 국어의 3개의 어휘의 의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로테스크하다’처럼 ‘grotesque’의 원의미는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매우 이상하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구체명사와 결합하여 ‘그 모양이 매우 이상하다’는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 국어에서 두 의미 중 하나만 확보하게 되어 전자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후자의 의미만 들어와 기존어인 ‘기괴하다’보다 좁은 의미 영역을 가지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리버럴하다’처럼 국어에는 없던 영어의 ‘liberal'의 의미가 국어에 들어와 기존어의 의미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기존어의 의미에 없었던 의미 영역까지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41]

‘영어+하다’ 형용사들 중에는 국어의 기존어와 개념 의미가 전혀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다. 3유형의 ‘드레시하다, 스포티하다, 스펙터클하다, 섹시하다, 캐주얼하다, 컬러풀하다’가 그러하다. 이들은 순화의 대상이므로 순화어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순화어로 대치될 수 있는 어휘들이 아니다. 이들의 경우 새로운 기의가 생겨서 그 기의에 대한 기표를 외래어가 채운 꼴이라고 볼 수 있다.[42]

---

38) ‘스펙터클하다’는 예외의 경우이다. ‘spectacle’은 명사로서 ‘스펙터클하다’는 ‘영어 명사+하다’ 형용사이다.

39) 명사 외래어가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나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이 도입되면서 대치할 수 있는 국어의 어휘가 적절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40) 영어 형용사의 의미는 ‘다음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어 사전인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를 참고하였다.

41) 본 연구에서는 ‘영어+하다’ 형용사와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만을 분석했으나, 영어 외래어의 유입과 정착 양상을 더 정교하게 연구하려면 영어의 본래의 의미 영역과 국어에서 차용된 의미, 그리고 기존어, 이 세 가지의 유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논의에서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42) 새로운 기의가 생기면서 그것을 채울 기표를 찾을 때 국어의 기존어에서 합성이나 파생을 거쳐 만들거나, 새로운 어형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외래어가 그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물

www.kci.go.kr

3유형의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국어의 기존어로 대치될 수 없는 어휘들이다. 예를 들어 보면 ‘스포티하다’의 경우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당한 스타일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쾌하다’, ‘날렵하다’로는 이 의미를 드러내 줄 수가 없다. 물론 어떤 대상이 ‘스포티하다’, ‘경쾌하다’ 두 어휘로 모두 서술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즉 두 어휘는 서술의 대상이 같을 수는 있어도 그 의미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스포티하다’는 국어의 기존어와 개념적으로 중첩되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섹시하다’도 기존의 국어의 어휘로는 나타내 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국어의 어휘로 유입되면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엔 ‘관능적이다’, ‘선정적이다’는 그 의미가 너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어감이 강했지만, ‘섹시하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가진 하나의 매력이라는 의미를 가져 최근에 성적인 것에 과거보다 관대하게 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섹시하다’의 많은 용례를 보았을 때 ‘섹시하다’에 적절하게 대치할 다른 어휘를 찾는 것이 힘들다.

‘쿨하다’, ‘시크하다’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영어+하다’ 형용사의 예이다. ‘쿨하다’와 ‘시크하다’도 이 3유형에 속할 수 있는데, 이들의 원어인 cool과 chic가 국어의 어떤 다른 기존어로도 잘 대치가 안 되는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어에 들어와 ‘하다’와 결합하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영어의 간섭으로 인해1 만들어져 국어에 들어오고 기존어와 거의 동의, 중첩, 포함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며, 때로는 기존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국어 속에 자리 잡는다.

5. 결론

이상으로 ‘영어+하다’ 형용사가 국어 속에서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그 양상을 유의 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영어+하다’ 형용사들은 다양한

론 새로운 기의가 외래어의 간섭으로 생겨났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www.kci.go.kr

양상으로 기존어와 유의 관계를 맺으며 국어 속에 정착되어 있다. 기존어와 거의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감이나 문체상의 차이를 가지고 국어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첩이나 포함의 유의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국어의 기존어와 전혀 유의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국어 속에 정착된 어휘들도 있다.

외래어라고 하여 무조건 순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무조건 기존어에 대하여 잉여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기존어로 채워지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간섭이 요즘 같이 심해지는 때일수록 무조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저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외래어가 국어 속에서 어떤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지, 기존어와 어떤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할 때 잉여적인 요소는 배격하고, 기존어에서 채울 수 없는 의미 영역을 어떤 기표로 채울 것인지 고민하며 외래어의 남용을 막을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하다’ 형용사의 기존어와의 유의 관계 분석을 통해 정착 양상을 살폈다. 유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영어+하다’ 형용사와 기존어와만 비교하였다. 그러나 ‘영어+하다’ 형용사의 정착 양상을 제대로 살피려면 ‘영어’의 본래 의미와 국어에서 ‘영어+하다’ 꼴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기존어의 의미를 같이 비교해야만 ‘영어’가 어떻게 국어 속에서 유입되어 사용되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원어의 모든 의미가 한국어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특정 의미만 들어와 한국어 속에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의 본래 의미와 ‘영어+하다’의 의미 기존어와 맺는 유의 관계 분석이 같이 비교되면 ‘영어+하다’ 외래어의 유입과 정착 양상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논문 및 논저류>
국립국어원(편)(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 Ⅰ · Ⅱ」, 국립국어원.
김광해(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20, 국어학회, pp. 28-46.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광해(1999), “형용사 유의어의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아름답다, 추하다’ 군을 중심으로”, 「선청어문」27,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pp. 72-99.
김진해(2006), “신어와 언어 ‘밖’-언어주체의 다양성과 의미 설정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16-4, 국립국어원.
김용석(1981), “유의어 연구-그 개념규정과 유형분류”, 「배달말」5, 배달말학회, pp.103-122.
김은영(2004), “감정동사 유의어의 의미 연구-‘즐겁다, 무섭다’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14, 한국어 의미학회, pp. 121-147.
김해연(2006), “콩글리시(Konglish) 단어의 유형과 언어적 동기”, 담화인지 언어학회 제27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pp. 31-49.
노명희(2006),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성”,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노명희(2009), “외래어 단어 형성”, 국어국문학」153, 국어국문학회, pp. 5-29.
민현식(1998), “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2, 한국어의미학회, pp. 91-132.
봉미경(2005), “국어 형용사 유의관계의 유형”, 「언어사실과 관점」14 · 15 · 1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 99-135.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양명희(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22, 한국어의미학회, pp.165-184.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이광호(2002), “유의어 정도성 측정을 위한 집합론적 유형화”, 「문학과 언어」24, 문학과언어학회, pp. 57-78.
이선영(2007), “국어 신어의 정착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24, 한국어의미학회, pp.175-195.
이진걸(1974), “문맥을 통한 유의어간의 유의도 측정에 관한 시고”, 선청어문」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 75-104.
이홍식(2004), “외래어 동사의 논항 구조”, 「언어과학연구」31, pp. 229-246.
임소영 · 안주호(2004), “대학생의 외래어 사용 양상”, 「한글」263, 한글학회, pp. 125-156.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www.kci.go.kr

최홍열(2005ㄱ), “‘불쌍하다’ 유의어의 의미고찰”, 「한국어의미학」17, 한국어의미학회, pp. 95-124.
최홍열(2005ㄴ), “‘모자라다’ 유의어의 의미고찰”, 「한국어학 29, 한국어학회, pp. 257-284.
Leech, G. N. (1974/1981), *Semantics*, Harmondsworth : Penguin.

<사전류>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개발원(편)(2006),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인터넷 자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dna.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손혜옥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위당관 언어정보연구원 521호
010-3367-1090
darmal@daum.net

이수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3동 295-1번지 백년주택 303호
010-9359-2805
bichlo11@daum.net

원고 접수일: 2011년 07월 02일
원고 수정일: 2011년 08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08월 23일

www.kci.go.kr

www.kci.go.kr